

공유경제의 환상과 현실... 노동자는 행복한가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알렉산드리아 J. 레브넬 지음·김고명 옮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반려견의 용변을 치우는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공유경제서비스가 등장했다. 이른바 '푸퍼Pooper'는 '개똥계의 우버'라고 불린다.

이 서비스는 잠재적 용변 처리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앱 개발자를 당혹스럽게 할 정도의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이 앱은 상용화된 앱 플랫폼이 아닌 '예술 프로젝트' 기획으로 만들어졌다. 개발자가 '푸퍼'를 만든 이유는 앱에 등록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해도 되는 일까지 공유경제에 맡기는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을 비꼬려는 의도였다.

오늘의 시대를 공유경제 시대라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집합체인 공유경제는 '공동체성'으로 자본주의를 초월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남 밑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언제 어떻게 돈을 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 각 이코노미(비정규 프리랜서가 확산되는 경

제)의 환상을 버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J. 레브넬 노스캐롤라이나대 조교수는 자신의 저서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에서 각 이코노미의 민낯과 무너지는 플랫폼 노동자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80여 명의 노동자에게서 직접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공유경제 이면의 모순을 조망한다. 공유경제가 약속한 노동자의 실제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공유경제를 다룬 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 레브넬 교수가 펴낸 책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플랫폼 작동방식과 노동자들 실태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기 다른 4개의 플랫폼 서비스에 초점을 뒀다. 숙박-에어비엔비, 교통수단-우버, 단기 아르바이트 서비스-태스크래빗, 출장 요리-키친 서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 현상이 그것이다.

특히 2030세대 노동자 사연에 주요점을 둔 것은 앱 기반 혁신경제를 자처하는 공유경제가 사실상 밀레니얼 세대에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첨단기술을 받아들였지만 실상 공유경제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대안노동의 한 모델처럼 인식돼온 공유경제가 사실상 이로부터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2장은



우버의 웹사이트 화면에는 "당신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버의 기사가 되어 독립 계약자로 수입을 올리세요"라는 문구가 올라 있다. <물리코스터 제공>

자주 언급되는 네 개의 플랫폼의 실상과 주요하게 살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한다.

3~4장에서는 노동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공유경제가 위험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한다. 이 문제는 노동의 비정규화라는 큰 흐름과 맞물려 있다. 5장은 공유경제 내 성희롱 실태와, 노동자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6장에서는 불법과 합법성이 의심되는 일에 연루된 노동자들 이야기와 공유경제가 새로운 범죄 온상이 될 수도 있는 현실

도 다룬다. 7장에서는 자본과 전자기술 덕분에 공유경제에서 예외적으로 성공한 노동자들도 살펴본다. 결론 마지막 장에서는 공유경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 리더들 인터뷰를 담았다.

저자는 "공유경제는 노동자가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길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성장은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장치가 더욱더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리코스터·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여름밤 열 시 반=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여덟번째 작품으로 새롭게 리뉴얼되어 출간됐다. 한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부인의 친구, 네 사람이 여름휴가 동안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폭풍우를 피해 들른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불가능한 사랑에 집착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욕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그려낸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아버지의 사과 편지=진중 성폭력 피해자인 저자가 책임을 회피한 채 세상을 떠난 가해자인 아버지를 무덤에서 불러내 자신 앞에 세운다. 책은 잔혹한 폭력의 실상을 담아낸 고통의 기록이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폭력을 고발하는 증언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엇을 사과해야 하고, 어떻게 사죄의 말을 건네야 하는지 안내한다.
<심심·1만5000원>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기획한 청소년용 북한 말 사전으로, 북한 말을 출발점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은 물론 북한의 사회·문화를 살펴본다. 학교와 교육, 정치와 사회, 의식주 등 주제에 따라 5부로 구성됐으며 각 부의 앞부분에는 남한



의 청소년들이 북한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과정을 만화로 소개한다.
<창비교육·1만4000원>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새로운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많은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로 인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드러낸다. 저자는 인간성 회복과 상호작용이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결과로 이어져 생산성을 증대한다고 말하며, 생산성을 높이되 창의성을 유지하는 방법, 공유 학습 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예문아카데미·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체부 코스타스 아저씨의 이상한 편지=희망을 전하는 우체부 코스타스 아저씨 이야기다. 편지로 소식을 전하던 시절, 어느 섬마을에 하나 뿐인 우체부 코스타스 아저씨가 살았다. 책은 행복한 소식은 한달음에 달려가 전하고, 슬픈 소식에는 함께 슬퍼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 주는 코스타스 아저씨를 통해 묵묵히 일하는 이웃들의 희생과 다정함을 전한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그레도 나는="오늘 기분이 어때?"라고 물었을 때 자기 기분을 제대로 잘 표현하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도 매일매일 다양한 감정을 겪고 복잡 다단한 경험을 한다. 책은 나의 기분을 표

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감정 상태를 동물 캐릭터로 보여 주며, 어떠한 캐릭터로 변신해서 기분을 표현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나'라는 걸 보여준다.
<봄날·1만3000원>

▲오싹한 경교장=4편의 도시괴담을 묶은 괴담 시리즈다. 작품 속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엔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숨어 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약령이 갖든 부채를 사용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요괴의 봉인을 풀기도 한다. 이야기는 작가의 목격담에 바탕을 뒀다.
<오울·1만4000원>

도시를 발로 사색하고 머릿속에 담는다

도시를 걷는 여자들

로런 엘킨 지음·홍한별 번역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은 도시를 걸었다. '도시 산보자(산책자)'는 '도시를 발로 머릿속에 담는 이들'이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상을 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 길은 누가 걸었나? 상상하기도 한다. 걷기 행위는 많은 사상가들과 작가들의 예찬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녀들'의 통찰력 있는 '걷기'는 기록되지 못했다.

작가이자 비평가인 로런 엘킨이 쓴 '도시를 걷는 여자들-도시를 거닐고 전복하고 창조한 여성 예술가들을 만나다'는 분

명히 존재했으나 지워져 버린 여성들의 지성의 문화와 걷기 역사를 직접 발로 걸으며 복원해 낸 글이다. 책은 20년 넘게 이어온 자신의 걷기를 돌아본 회고록이자, 다양한 도시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읽어낸 도시 여행기이며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과 삶을 분석한 탁월한 예술비평서다.

저자는 여성은 어떻게 도시 환경에서 배제돼 왔는가, 그럼에도 도시는 여성에게 어떤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여성이 도시를 걷기 시작했을 때 걷기라는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뒤바뀌는 지 탐색한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미국 교외에서 태어난 저자는 '걷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파리에 살게 된 그녀는 걷기를 통해 파리를 가장 '진하게' 체험하게 됐고 사라져 버린 '걷기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그 여정은 전 세계로 이어졌고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눈으로 도시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사라져 버린 여성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낸다.

그녀가 주목한 여성 산책자들은 조르주 상드, 버지니아 울프, 소피 칼, 아네스 바르다 등 '걷기와 사색을 통해 자기가 관찰한 삶에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고 새로 만들어낸' 예술가들이다.

저자는 버지니아 울프를 산책자에 관한 탁월한 에세이를 쓴 작가, 도시 공간을 온

몸으로 느껴야 했고 여성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한 작가로 소개하며 그의 작품 '탈러웨이 부인', '자기만의 방' 등을 또 다른 시각으로 읽어낸다.

19세기, 남장을 한 채 파리를 거닐 수 많은 애인을 둔 조르주 상드는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자신의 작품에서 사회와 젠더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는지 들려주고, 종종 헤밍웨이의 전 부인으로서만 인식돼 온 여성 중군기자 마사 겔혼의 이야기, 여성 산책자의 진화하는 과정을 영글에 담아낸 아네스 바르다 감독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녀의 여정은 파리를 비롯해 뉴욕, 베네치아, 도쿄, 런던 등으로 이어지고 그녀는 자신이 머물렀던 '모든 곳'에서 걸었다. 걷기를 통해 나와 무관한 삶을 엿보고 대화를 엿듣고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고, 예술가들의 흔적을 마음에 담기도 했으며 그 모든 이야기는 근사한 여행기로 남았다.
<반비·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